

瞻星臺에 대한 考察

延世大 天文氣象學科 朴 成 桓

瞻星臺는 이미 여러 著名한 學問의 大家 및 先輩들에 의한 多角의인 方向에서의 檢討 및 討論이 있었으며 더우기 이제 學問을 始作하였다 고 보아도 좋을 修學段階에 있는 本人으로서의 意見이나 主張을 發表하기에 이른 感이 없지 않아 여러번 주저하다가 펜을 들게 되었다.

瞻星臺에 대하여는 三國遺史, 高麗史, 世宗大王實錄地理志, 慶尚道總撰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東京志 등의 古文獻에 記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東京雜記와 增補文獻備考象緯考에는 瞻星臺에 대하여 各各 以候天文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分明히 天文하고 關係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構造에서 볼 때 出入口가 中間에 있기에 觀測을 하기 위하여 出入하기에 不便하고 觀測場所인 頂上이 觀測器機를 設置하고 여러 사람이 올라가 觀測하기에 不便하다. 萬若 그곳에 觀測器機를 設置했다면 觀測을 안하거나 雨天時에 그것을 덮는 裝置가 分明 必要했을텐데 그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또 裝置를 架設하기에 瞻星臺의 構造나 外觀上 適合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인다. 勿論 이것은 1300年 以前의 築造物이 現代와 같이 精巧하고 多樣한 發展된 形式의 것이 아니었고 天文觀測 역시 現代의 天文學에서와 같이 每日의 惝 惝여진 스케줄 속에서 行하지 못했던 點은 充分히 감안하고서의 推測이다. 瞻星臺는 天文觀測은 多少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常設天文臺로서의 役割은 하지 못했으며 그 構造가 天文思想을 상징하거나 靈星臺 같은 役割을 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더우기 그 構造가 어느 方向에서 보아도 똑같다는 것은 (中國이나 日本의 古代天文臺를 살펴 보아도, 어느 方向에서 보아도 똑같은 天文臺는 發見할 수 없다) 더욱 상징이나 靈星臺의 築造物일 可能性이 크며 天文觀測을 하였다면 그 周邊에 補助 建築物 같은 것이 있었을 可能性도 크지

만 그 周邊에 무엇이 있었다는 何等의 記錄이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서 新羅時代에는 어떤 種類의 天文器機가 使用되었는가 하는 것도 研究되어야 할 課題일 것이다). 瞻星臺가 圭表로 使用되었는지의 與否도 신중히 考察해야 할 問題이지만 本人의 생각으로는 外觀으로 살펴 봐도 그렇고 中國의 周公測景臺와 같이 그림자의 길이를 測定하는 裝置의 흔적은 地上에서 전혀 發見할 수 없고 그 記錄도 없는 點 등으로 보아 圭表로 使用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無理일 것 같다. 또 「비두골」(北斗)이라는 單語는 天文을 상징하거나 靈星臺를 위한 築造物에서 起因되었거나 後世에 그러한 地名이 만들어져서 傳來되었을 可能性도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또 瞻星臺의 建立 當時의 周邊背景을 알아 보는 것도 重要的 일일 것이다. 瞻星臺가 建立된 무렵 百濟의 技術者들이 新羅에 와서 皇龍寺와 九層塔을 建立하였으며 技術者들이 (百濟의) 日本에 가서 占星臺를 세웠다는 記錄이 있는 點에서 보아 瞻星臺도 百濟의 技術者들에 의하여 建立되었고 百濟에는 이미 天文臺가 建立되어 있었을 可能性이 크다. 新羅보다 先進國이던 百濟의 天文臺에 대한 位置 및 構造 등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에게 文化를 傳해 준 古代 中國및 우리가 文化를 傳해 준 古代 日本의 天文臺에 대하여 詳細히 究明해 보는 것도 우리의 瞻星臺의 研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그 必要性이 切實하다고 보겠다.

思考의 心理學과 病理學

延世大 醫大 李 東 植

나는 思考의 心理學乃至 病理學의 立場에서 討論을 해 볼까 한다.

瞻星臺가 글자부터가 별을 보는 臺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過去의 모든 記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明白한 事實에서부터 出發하는 것이 健康한 發想이요 研究態度다.

瞻星臺의 形態가 무엇을 닮았느니 하는 것은 枝葉的인 問題다. 그리고 天文觀測을 과연 했겠나 특히 器機를 裝置했겠나 云云도 二次的인

問題다. 器機作用은 天文觀測의 水準을 말하는 것이지 天文觀測 有無를 決定하는 것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瞻星臺는 現代의 天文臺와는 다르나 當時의 水準으로서는 틀림없는 天文觀測所이며, 다만 거기서 어떠한 水準의 天文觀測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占星의인 呪術的 要素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나가 앞으로 더욱 밝혀져야 될 문제로 생각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요사이 우리 學界의 一角에서는 先人들의 業績을 無視하고 確實한 根據 없이 外國學說을 갖다 붙이거나 해서 멋대로 學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猛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말하자면 恣意的인 幻想을 現實로 錯覺하고 있다는 事實을 깨달을 必要가 있다.

瞻星臺에 관한 所感

仁荷大 李 殷 晟

慶州瞻星臺가 왜 세워졌는가에 관하여 여러 意見이 나왔었다. 이에 앞서 淸星臺의 構造와 規模 및 方向 등에 관하여는 여러 會員에 의하여 세밀하게 調査되고 測定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端緒를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三國遺事의 「善德王知幾三事」條 末尾에 『是王代, 鍊石, 築瞻星臺』라고 간단히 적혀 있고, 東國輿地勝覽 「慶州」條에 『瞻星臺, 在府東南三里, 善德女王, 陳石築臺, 上方下圓, 高十九尺, 通其中, 人由中而上下, 以候天文』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1. 淸星臺의 外貌는 매우 優雅한 曲線美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매력을 끌며 佛教思想을 받은 느낌이 난다. 特히 그 外貌가 須彌山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에 대하여 同感이다. 그렇다고 해서 淸星臺를 단순히 佛教의 象徵으로만 본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臺의 頂上이 丸狀한 點으로 보아, 이곳에서 어떠한 作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2. 淸星臺를 一種의 祭壇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었다. 만일 이것이 祭壇이라면 祭物을 차려 놓고 祭官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頂上이 祭壇으로서는 너무 높고 좁은 편이라 생각된다. 무슨 理由로 굳세하게 祭物을 높은 臺上에 올려 놓는 不便을 겪게 하고, 여러 祭官이 거처장스러운 祭服을 입고 오르내리도록 할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女服을 입은 善德女王의 動作에 대한 苦役을 살펴 주지 않는 設計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3. 淸星臺가 天文觀測에 쓰였다면 왜 平地에 세웠을까라는 의문이 난다. 그 理由는 淸星臺를 宮殿에 가까이 두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淸星臺는 中國의 靈臺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晉書天文志 中宮條와 隨書天文志 經星中宮條에 『角外三星曰明堂, 天子布政之宮, 明堂西三星曰靈臺, 觀臺也, 主觀雲物察符瑞候災變也』라고 적혀 있고, 宋史 卷四十九 天文志에는 『靈臺三星, 在明堂西, 神之精明曰靈, 四方而高曰臺, 主觀雲物察符瑞候災變也』라 적혀 있다. 中國의 古天文圖에 의하여도 古代별자리 近三百자리 中 靈臺와 明堂과는 隣接해 있다. 이로 보아 瞻星臺는 天文과 氣象의 異變을 관측하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 관측의 主目的이 마치 占치는 데에 이용된 듯하다. 古代의 王이 占星術 등 卜術에 많은 關心을 가진 이유는 革命을 두려워하고 國亂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 中 占星術師는 日官을 겸했으며 王의 政治顧問으로 쓰여 帝王의 側近에 있었다.

淸星臺가 平地에 있다 하여 何等の 異議가 있을 바는 아니다. 書雲觀志 官廨條에 『昌慶宮之金虎門外, 慶熙宮之開陽門外, 皆有觀天臺』라고 적혀있는데, 그 註에 觀天臺는 『俗名曰 瞻星臺』로 적혀 있고, 또 廳事의 南쪽에 돌을 쌓아서 臺를 만들어서 그 위에 小簡儀를 安置시켜서 時를 측정했다고 적혀 있다.

4. 경주의 淸星臺를 圭表나 日晷(日晷)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런 意見들을 말한 분이 있지만 一吐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측정장치는 西洋에서 르네상스를 전후하여 金屬細工師의 精密度에 대한 不滿의 영향을 받은 이후부터 설치되었다. 그 不滿이 中國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이지만, 新羅時代에 이미 大規模의 측정장치를 建造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時代的으로 빠르다. 中國의 告成鎮(洛陽의 東南 30마일)에 설치된 觀天臺(周